‘달리는 흉기’ 무보험 車 광주 도심 5만여대 질주

사고 나도 보상 못받아…강제 운행정지 등 대책 시급

장기 불황속에 광주지역에서 수만대의 무보험 차량이 도심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이들 책임보험 미가입 차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도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만6천139건, 부과금액은 53억4천534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최고 300만원)받게 돼 절대 건수는 2007년(6만3천110건)에 비해 줄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보험 차량이 많은 것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운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의식도 낮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8천231건) 중 사망사고는 138건이며 이 가운데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8%인 11건에 달했다.

문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 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무보험차량인 승용차에 의해 크게 다친 정모(33)씨는 “8주 진단을 받았으나 보상은 물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해자가 보상능력마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무보험 차량은 이처럼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해야하는 구청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제5조) 일반 자가용 차량(2륜차 포함)은 의무적으로 대인·대물보험에, 영업용 차량·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는 대인·대물·대인 2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개인차량은 최대 90만원, 영업용차량은 최대 23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를 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강제 운행 정지나 보험 미가입 스티커부착 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계속된 경기불황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며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가입부터 한 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0명 장기기증 서약 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장에서 열린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40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마쳤다. 캠페인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가톨릭계 장기기증기관인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불교계의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참여하는 범 종교적 행사로 기획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교도소 수용자 방 넓어진다

삼각동 신축 부지 토지매입 급물살

완공 땐 1인당 2.58㎡ 현재의 1.5배

광주교도소 이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새 교도소가 완공되면 수용자들의 방이 1.5배 가량 넓어지고 의료시설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8일 광주지방교정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들어설 광주교도소 신축 건물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70% 가량 진행됐다.

광주교도소 이전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지난달 초까지 토지소유주들과의 이견차로 인해 35%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분묘 및 문중 토지 등 일부 소유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매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나머지 토지는 조만간 수용령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교도소 측은 올해 새 교도소 건물에 대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착공, 2012년 완공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새 교도소는 현재 육군 31사단 예비군 훈련장 주변인 삼각동 상월산 기슭에 들어선다. 부지 면적은 28만6천㎡로, 현재 2천명인 수용 규모를 1천500명으로 줄여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수용자 1인당 사용 면적은 2.58㎡(0.78평)로, 현재 광주교도소의 1인당 사용 면적(1.65㎡·0.5평)에 비해 1.5배 가량 넓어진다. 이는 정부가 달라진 신체 조건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해 교도소 등의 시설 기준을 정한 ‘법무시설기준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 등 관련 시설도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도소와 대전·영등포·부산교도소 등 4곳이 ‘의료중점교도소’로 지정돼 30~100병상 규모의 의료사동이 신축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교통사고 2년 연속 1위

차 1만대당 156.4건 … 사망자는 전남 최다

광주가 2년 연속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광주가 1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 평균은 105.7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05.8건을 기록했다.

광주는 2007년에도 153.8건(전국 평균 105.7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었다. 특히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2.9명을 밑돈 2.6명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광주가 568.8건으로 전국평균 444.0건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8천2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38명이 사망하고 1만3천5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1만2천728건보다 4.4%(805건) 늘었고, 사망자 수는 9.2%(14명)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월이 776건과 1천41건씩으로 가장 많았고 2월과 1월이 533건과 686건으로 가장 적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천294건과 1천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광주 1천19건·전남 1천343건)이 가장 적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교통사고 21만5천822건 중 8.67%인 1만8천733건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종행 기자 golee@

‘꽃남’ 탤런트 장자연 자살

KBS 2TV의 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탤런트 장자연(여·29)씨가 7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가 자택 내부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장씨 언니(33)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1년여 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2006년 ‘롯데제과’ CF를 통해 데뷔했으며, 지난해 조선대 대학원을 휴학하고 최근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악녀 3인방’ 중 써니 역할을 맡아 연기 활동에 전념해 왔다. /연합뉴스

영농철 농기계 사고 주의보

순천서 40대 숨져 … 지난해 전남 22명 사망

경운기를 몰던 40대가 시설물과 충돌해 숨지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에서 이모(46)씨가 몰던 경운기가 비닐하우스와 부딪치면서 이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경운기로 비료를 운반하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남지역에서는 22명이 농기계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325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326명이 다쳤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 의경 대구서 투신

8일 낮 12시 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21) 상경이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 상경은 휴가를 나온 뒤 집이 있는 목포를 떠나 대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상경의 유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우찬

〈7747〉 김종두

양식장 컨테이너 불 완도, 인부 1명 숨져

7일 새벽 4시40분께 완도군 군외면 흑일도 한 양식장의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인부 최모(47)씨가 숨지고 컨테이너 2동이 전소됐다.

경찰은 “최씨가 컨테이너 2동 가운데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사고 컨테이너에서 잠을 잤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양식장 관리 소장이 장어 상습 절도

쌍나팔

○…자신이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양식장에서 장어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가 경찰서행.

○…영광경찰은 8일 영광군 법성면 모 양식장에서 주인 최모(53)씨 몰래 300만원 상당의 장어를 훔쳐 팔아온 이모(48)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

○…이씨는 지난 3일 밤 8시께 장어 60㎏(12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훔친 뒤 주변 사람들에게 파는 등 7차례에 걸쳐 297만원 상당의 장어를 훔친 혐의.

○…경찰은 ‘장어가 계속 없어진다’는 주인 최씨의 신고에 따라 양식장 내 CC(폐쇄회로)TV를 분석, 이씨의 소행임을 밝혀내 지난 6일 검거.

/영광=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